

이번엔 시공사 유동성 위기...지산동 주택조합 또 슬렁

이중분양 흥역 겪고 새 시공사 한국건설 위기에 불안감 확산 한국건설 광주 공사현장 22곳...4곳 중도금 이자 납부 못해 조합 "하도급업체 직불 처리 등 안전장치 입주 차질 없을 것"

이중분양 논란으로 흥역을 앓았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들이 이번엔 시공사인 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슬렁이고 있다. 22일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합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는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가 조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도 '한국건설 위기·부도설이 돈다', '한국건설 문제가 우리 사업장뿐만이 아니다'는 등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한국건설 신축공사 현장은 총 22곳이며, 한국건설은 이 중 아파트 1곳, 오피스텔 3곳 사업장에서 중도금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곳 4개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한국건설 측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20년 한국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지산동 지주조합에서도 불뚱이 될 지 모른

다는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한차례 이중분양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조합은 당초 한양립에게 시공을 맡겼으나, 분양대행사가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벌여 125명으로부터 81억원을 갈취한 사건이 터진 데 따라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산동 지주조합에서는 지주택 대행사 전 회장 A씨 등 8명이 공모해 이미 조합원 가입이 완료된 동 호수 중 일부를 비어있는 세대처럼 꾸며 조합원 모집업무대행 업체 본부장과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중복분양하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조합원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 보전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새 시공사인 한국건설마저 휘청이니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은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건설과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한 차례 시공사가 바뀐데다 입주일이 불과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3일 총회에서 입주할 때까지 한국건설과 계약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며 "그 대신 한국건설이 휘청이더라도 조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조합은 한국건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조합에서 직불 처리하고 있다. 조합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한국건설이 법원 가압류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조합 차원에서 건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준공 전 부담금과 외부 투자를 포함하면 650~750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있으므로 당장 조합에서 하도급업체에 지불할 현금이 떨어지는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놴. 중도금 대출 또한 조합이 주체가 돼 대출을 해 준 것이므로 한국건설로 인한 리스크가 적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한국건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파산을 해 건설사를 다른 업체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문제 없이 입주까지 마칠 수 있다"며 "한국건설 또한 부동산을 포함하면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으므로 파산보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산동 지주조합은 지난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2020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3월 착공했다. 오는 2025년 5월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25층짜리 건물 6동을 지어 총 454세대(연면적 6만 699㎡)가 입주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노로바이러스 예방 손씻기 교육 22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계약 파기한 지산동 주택 조합원 분양금 환수

원상회복 항소심서 일부 승소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조합원이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동·호수가 사라져 계약을 파기했어도 분양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조합과 신탁사, 업무·분양대행사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과장과 팀장은 A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산동지역주택조합과 104동 2002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권리를 양수받았다. A씨는 이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사가 지정한 조합추진위 명의로 계좌로 2차례 나눠 5300여만원을 입금하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104동 2002호는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과 신탁사 업무·분양대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6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사업개요는 변경될 수 있다는 고지가 포함되어 있어 A씨가 분양받기로 한 동·호수가 변경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정만으로 조합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팀장과 과장은 A씨를 속여 부담금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조합추진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불법행위로 A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 신탁사,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A씨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이스피싱 전달책 1·2심 무죄에 검찰 심의위 열어 대법 상고

'부실채권 추심인줄 알았다'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주장이 1·2심에서 인용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6일 사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700만원을 회수해 이중 655여만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취업과정,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생활정보 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해 조직원이 '부실채권을 추심업무'라고 하자 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을 때도 실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한 다음날 동생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 말을 들은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추가 지시를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 확산도 막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득에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택시로 이동하려는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

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식대 명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검찰 형사 상고심의 위원회는 송금 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고 과도한 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는 법리상 부당한 점이 있다고 봤다. 광주지검은 "상고심의위 의결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투명하고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 상고위원회 의결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금당산서 실종자 숨진채 발견

광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3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여·55)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실종신고된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광주시 북구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동거인 A씨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질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체에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아직까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부검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광주시 남구 진월동 금당산 헬기장 인근에서 B(6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1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닷새 만에 발견됐으나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은 B씨가 등산 중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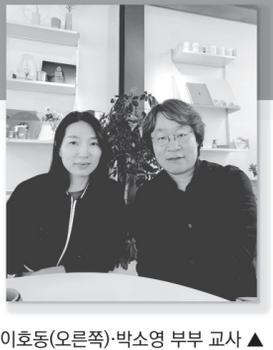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